

‘캐즘 탈출?’… 전기차, 신차·중고차 시장 성장으로 상승세

현대차 아이오닉 9, 중형 시장 확대
기아 EV3·EV4 등 상반기 판매 성장
테슬라 모델 Y 신차판매 53.7% 증가
BYD 아토3 등 프리미엄 인기 상승

‘캐즘(일시적 소비침체)’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이 반등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가격 부담이 낮아진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자동차시장조사업체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에 등록된 신차는 9만35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의 판매 상승은 완성차 브랜드의 신형 모델 출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차 가운데 기아 EV3(1만2299대), 현대차 아이오닉 9(3469대), 기아 EV4(3047대), 무쏘EV(1938대)가 상반기 판매를 이끌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4년 만의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된 테슬라 모델 Y가 1만5432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53.7% 상승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아토3(1331대)와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 4(1070대)는 6000만원



폴스타4.



/폴스타 BYD 아토 3.

대의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1000대 이상이 판매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중고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급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중고차 전체 실거래 대수는 총 114만9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반면 전기차 거래는 2만249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경우 연식이 낮고 가격 부담도 낮아지면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최소화한게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형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적용해도 내연기관 대비 가격대가 높지만 중고차는 보조금 적용된 가격에서 감가상각이 더해지면서 내연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8월 세닉 E-Tech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 또 사전 계약시 무상 보증 연장, 소모품 교환권, 충전 크레딧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기프트 패키지’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프랑스 르노 본사 방문 등의 파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YD는 중형 전기 세단 쉐 샤룽구동(AWD) 국내 인증을 마무리하고 판매 가격을 4690만원으로 책정했다. BYD는 연내 세 번째 모델인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도 다섯 번째 전기차인 SUV EV5를 올 하반기 출시

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침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등장으로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지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이끌었다”며 “캐스퍼 EV 등 저렴한 차량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OCI홀딩스

반도체 폴리실리콘 진출

도쿠야마와 말레이시아 공장 합작

한일 기업이 반도체 핵심소재 분야 첫 합작법인 OTSM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말라주 산업단지에서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OTSM의 지분은 OCI 테라서스와 도쿠야마가 5:5이며 총 4억 3500만 달러(한화 약 6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예정이다. 합작 상대인 도쿠야마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글로벌 생산량 3위 업체다.

그동안 한일 기업 간 반도체 협력은 주로 완제품이나 장비 분야에 집중돼 있었지만 소재 분야(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외)에서의 합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OTSM의 신규 공장은 OCI 테라서스 내 약 4만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PCN(고객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연간 8000톤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 및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 ‘AI 세탁기·건조기’ 분리형 선배… 풀라인업 완성

대용량 25kg 세탁기·22kg 건조기
에너지 절감효과, 최대 60% 절약
글로벌 보안 인증 획득, IoT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과 대용량을 갖춘 2025년형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대 용량과 강화된 인공지능(AI) 기능, 고효율 설계를 모두 갖춘 분리형 모델이다.

신제품은 세탁기 25kg, 건조기 22kg로 대용량이 특징이다. 공간에 따라 상하·좌우 설치는 물론, 각각 분리해 배치할 수 있어 실사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리형 모델 출시로 ▲일체형 ‘AI 콤보’ ▲상하 결합형



삼성전자 모델이 7형 ‘AI홈’ 터치스크린을 탑재하고 한층 강화된 AI 기능도 제공하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AI 원바디’ ▲분리형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까지 세탁가전 전 라인업을 완성했다.

신제품에는 ‘AI 맞춤세탁+’, ‘AI 맞춤건조+’ 기능이 탑재됐다. 세탁기는 세탁물의 종류·무게·오염도를 자동 인식해 세제량과 코스를 조절한다. 건조기는 옷감의 재질에 맞춰 열과 시간 설정을 최적화한다. 데님·아웃도어류까지 세분화된 소재별 관리가 가능하다.

건조기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드럼 내부 온도를 60도 이하로 유지하는 저온 제습 방식으로, 의류 손상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 7형 ‘AI홈’ 터치스크린과 음성 비서 ‘빅스비’가 탑재돼 간편한 제어가 가능하다. ‘멤뷰’ 기능으로 집안의 가전기기 상태도 3D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에너지 절감 효과도 돋보인다. 25kg 세탁기의 경우, 1등급 제품 기준 대비 소비전력이 45% 낮다. 스마트싱스 앱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보안 기능도 강화됐다. 이번 세탁기·건조기 전 모델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일체형 콤보 모델은 2년 연속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출고가는 세탁기 194만9000~214만9000원, 건조기 194만9000~229만9000원이다. 색상은 다크스틸, 실버스틸, 그레이지, 화이트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을 운영하며 외부 스타트업 13곳을 선발했다. 이들과 함께 webOS 기반 콘텐츠, ‘LG 씽큐’ 연동 웰니스 솔루션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스튜디오341’은 LG전자 고유의 사내벤처 육성 플랫폼이다. 명칭은 금성사 시절 첫 본사 주소지인 부산 연지동 341번지에서 따왔으며, 도전과 변화의 DNA를 되살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성진 LG전자 CSO부문 사업기획 담당은 “스튜디오341 플랫폼을 통해 LG전자의 ‘도전과 변화의 DNA’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LG, ‘스타트업 DNA’ 키운다… 사내벤처 12개 팀 선발

‘스튜디오341’ 시즌2 본격화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도 확대

LG전자가 인공지능(AI), 클린테크,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사내외 혁신 생태계 조성 속도를 낸다.

17일 LG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스튜디오341’ 시즌2에 참여할 12개 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내부 공모와 외부 액셀러레이팅 기업 블루포인

트파트너스의 심사를 거쳤으며, 경쟁률은 11.8대 1을 기록했다.

선발된 팀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성을 검증받는다. 이후 최대 5개 팀을 선정해 스타트업으로 분사(스핀오프)한다. 팀당 최대 4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다. 내년 초 투자자 대상 발표 행사(데모데이)도 예정돼 있다.

이번 시즌에는 ▲AI 기반 IP 유통 ▲배터리 열 제어 소재 ▲순환 의류 플랫폼 ▲배달 포장 자동화 등 실생활 밀

착형 기술이 포함됐다. LG전자 관계자는 “AI홈, 자동화 솔루션, 웰니스 등 자사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사 이후에도 전용 공간, 후속 프로그램 등 안정화 지원이 이어진다. 지난해 시즌1에서 분사한 5개 팀은 1년 만에 평균 기업가치가 5배 성장했다.

사내벤처뿐 아니라 사외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LG전자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삼성전자 ‘하만’

JBL 투모로우랜드 협업

‘블루투스 스피커’ 공개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인태셔널이 JBL과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가 협업한 블루투스 스피커 ‘JBL 플립7 투모로우랜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블랙과 골드 컬러 조합에 투모로우랜드 상징인 나비 로고를 새겨 디자인됐다. 음악, 자유, 열정이라는 투모로우랜드의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최대 14시간 연속 재생을 지원하며, AI 기반 실시간 음향 최적화 기술인 ‘AI 사운드 부스트’, 다중 기기 동시 연결이 가능한 ‘오라캐스트’ 기능을 탑재했다. 방수·방진 기능도 갖춰 야외 활동이나 페스티벌 환경에 적합하다.

정식 출시는 오는 23일이며, 삼성닷컴과 JBL 공식 온라인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출고가는 18만9000원이다.

한편, JBL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벨기에 북에서 열리는 투모로우랜드 현장에도 참가한다. 오는 18일~20일과 25~27일 ‘하우스 오브 포춘 by JBL’ 스테이지를 선보인다. 이 무대에서 ‘마틴 개릭스 뮤직 아카데미’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현장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